

## 따뜻한 겨울...전남 농어촌 속탄다

올 겨울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서 전남 농어촌은 작물 발육부진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최근엔 기상 관측 이래 1월 최대 강수량을 기록, 조생종 품질관리에 이상이 걸린 가운데 상당수 농작물과 수산물도 일정치 않은 기온상황으로 영어농 일지실제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내내 일일 최고기온은 완도 19.3도, 장흥 19.2도, 해남 18.5도, 영광 16.8도 등 각 지역 관측사상 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최저기온도 신안 흑산도 11.3도(역대 2위), 목포 9.4도(3위), 해남 9.1도(4위)로 일일 최저·최

고기온은 모두 평년보다 6~13도 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남지역 올 겨울 강수량은 39mm로 평년 대비 25mm 많은데 이어 기상 관측 이래 1월 중 최대 강수량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올 겨울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선 농가들은 농작물 관리에 난감해하고 있다. 우선 보리는 잦은 겨울비에 노출된 보리작물은 습해에 취약해 서둘러 물빠짐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잎이 노랗게 고사하는 '황화현상'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문제는 대표적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다. 마늘

은 파종 이후 영양생장(줄기·잎·뿌리 등 영양기관의 생장)을 하다 한겨울이 되면 생육을 멈춘다.

이후 봄철에 다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꽃·과실·종자 등 생식기관의 생장)을 거치면서 과실이 발육한다. 이 과정에서 눈은 언피해를 예방해주고 주요한 수분공급원이 된다.

그러나 올 겨울 높은 기온과 강수량으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벌써 '마늘잎 옷자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스편지 마늘' 등 상품 저하와 병충해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기상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속되는 이상기온 농작물 발육부진·생산성 저하 병해충 피해도 우려... "정부차원 농정대책 세워야"

한파가 몰아지면 모든 발작물 생육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농정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따뜻한 겨울 날씨로 월동하는 해충의 생존율 상승과 해충이 깨어나는 시기도 빨라져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 어촌마을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에 고심이 깊다.

당장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김은 평균수온이 2도 이상 높아 전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 이상 떨어졌다. 또 기온 하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김 품질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시장성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양식어가 관계자는 "겨울철 최소 2번 이상 눈

이 쌓이고 녹는 과정이 반복돼 김 품질이 좋아지는데 올해는 여의치 않다"며 "가뜩이나 지난해 태풍 여파까지 있어 작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 먹이인 다시마 등 해조류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와 적설량에 따라 생육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 겨울 기상기온이 생산량에 주는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기후 영향에 따라 작황이 달라진다"며 "아직 예단하기 힘들지만 이상기온에 맞는 농어가별 경영계획과 정부 차원의 농정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총선 시민모임 출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총선 시민모임'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후보 선정·당선 운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정치개혁 운동, 유권자 투표 참여 활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태구 기자

## 광주에 '노화연구' 전초기지 들어선다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준공식

광주 남구 도점산단에 노화연구 전초기지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점산단에 들어서는 노화연구시설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화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시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노화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시

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노화연구시설은 국비 110억원 등 총 190억원을 투입해 대지 1만6,532㎡ 부지, 연면적 3,730㎡에 3층 규모로 건립됐다.

노화연구 수행을 위한 고령동물 공급 및 개방형 노화연구 플랫폼으로서 ▲초고령화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현 위한 연구 및 산업지원 ▲질환 동물모델 연구 및 노화연구 원천기술 개발 ▲나노이미징에서 개체 이미징까지 원스톱 연구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원은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고령동물 공급

과 퇴행성질환 치료 연구 등 노화연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역기업의 연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해 노화관련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바이오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항노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연구원은 2단계 사업으로 지역 소재부품을 포함한 각종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호남권 연구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설 건립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 430억원과 고용창출 224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기아차 새해 첫 파업 신차 수급 차질 우려

임금협상 결렬 17일까지 부분단축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새해벽두부터 첫 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차종의 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K7, K5, 셀토스 등 신차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돼 13일부터 1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 19차 임금교섭이 예정된 14일은 정상근무한다.

지난해 일일합 타결에 실패한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추가 분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경기도 광명과 광주공장 노조는 15일까지 주·야간조의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단축하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분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 사기 증진을 위해 라

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S급 5천원 인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는 안도 합의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7,050명 중 반대 56%(1만5,159명), 찬성 1만1,864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노사는 같은달 20일 17차 분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부분 등이 앞선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자 24일에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납득할만한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장을 보는 결단을 할 것이다"며 "교섭을 마무리하길 원한다면 분교섭에서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당초 셀토스 인기에 힘입어 생산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임금교섭과 관련 3차례 부분파업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현 기자

본사 인사 (2020년 1월 13일자)

▲김종호 미래전략연구원장 (이사)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중흥S-클래스

www.s-class.co.kr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